

Flower Sculpture

(Daniel Ost)

경일대학교, 수원대학교 정혜선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배천범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세계
- IV. 작품 제작
- V. 결론 및 제언

<요 약>

인간은 자연을 미에 대한 표현의 대상으로 보고 이미지를 조형화 하는데 노력한다. 그중 식물을 이용한 디자인은 새로운 형태미에 대한 표현 수단으로 이용되며, 식물의 움직임이나 표면 구조에서 나타나는 개성과 특성을 재표현함으로써 창작의 모티브로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에 있어서 식물을 대상으로 관찰, 탐구하여 그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의상에 접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Flower Sculpture(화예 조각)의 조형미를 분석, 의상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자연미와 Florist(화예 디자이너)의 조형세계 및 그 특질이 결합된 창의적 디자인을 제시하고, 나아가 의상디자인의 표현영역을 확대함에 의의가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화예와 Flower Sculpture의 특징을 서술하고, 조형예술로서의 Flower Sculpture 작품 사례를 참고 문헌과 사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Flower Sculpture와 의상디자인의 관련성은 화예 작품과 의상 디자인 사진자료의 조사, 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작품제작의 모티브인 다니엘 오스트(Daniel Ost)의 작품세계와 작품집을 통한 형태, 소재, 색상 분석으로 단순하면서도 조형적인 요소를 의상과 접목시키고자 한다.

표현소재는 화예에서 사용되는 자연소재와 가공소재를 실크, 면, 노방과 접목시켜 사용하였고 동선, 구슬을 장식적 측면에서 활용하였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아트플라워(Art Flower), 비딩(Beading), 퀴팅(Quilting), 파이핑(Piping), 니팅(Knitting), 염색(Hand Made Dying)등을 사용하였다.

작품제작은 조각적 조형미를 지닌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을 표현 모티브로 해 의상 8점을 실물 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Flower Sculpture작품에 나타난 독특한 재질감을 통해 의상 소재의 표면 장식적 측면에서 다각적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다니엘 오스트 Flower Sculpture작품에서 보여지는 섬세하면서 단순한 형태미는 의상 실루엣의 창의적 표현에 적절하였다.

셋째, 식물의 유기적 형태미는 표현기법에 대한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식물의 줄기, 잎, 뿌리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확대, 변형, 재구성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의상에서의 장식적 단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Flower Sculpture는 자연미와 예술미를 동시에 결합시킨 것으로써 조형 효과가 뛰어나며, 작품에서 나타난 단위 형태의 중첩과 그로 인한 조형미는 의상의 표면감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상과 같이 Flower Sculpture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는 독창적인 실루엣과 소재의 차별화로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화예에서 보여지는 조각적 형태미와 색채, 재질에 있어서의 독특한 요소들은 의상디자인의 표현 모티브로서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lower Sculpture의 다양한 표현방법이나 형태미가 자연과 더불어 좀 더 폭넓게 연구 되기를 기대한다

I.

자연의 무한한 형태적 이미지는 창작의 모티브로 이용된다. 이러한 자연의 생명력을 조형화 하는 작업으로 화예¹⁾가 활용되며 화예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특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의상에 접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Flower Sculpture(화예 조각)의 조형미를 분석, 의상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자연의 미와 Florist(화예 디자이너)의 조형세계 및 그 특질이 결합된 창의적 디자인을 제시하고, 나아가 의상디자인의 표현영역을 확대함에 그 목적이 있다.

Flower Sculpture는 벨기에 출신의 Florist인 다니엘 오스트(Daniel Ost) 작품의 화예 유형을 대표적인 형태로 보면서, 조각적인 성향이 강한 조형적인 화예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화예의 형태를 섬세한 움직임에 따른 울동성과 다양한 색채와 모양을 조형화 하고 소재의 표현재료를 조형적으

1) 본 연구에서는 화예의 개념을 꽃꽂이, 꽃예술, 화훼장식, 화예디자인, 플라워디자인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자 한다.

로 응용하여 의상에 도입함으로 새로운 구성이 된다.

현대의 대량기계 생산사회에 있어서야 말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자연재료의 특성과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조형제작의 태도가 필요하다.²⁾ 이에 맞추어 자연 소재와 색상의 이용으로 자연형태의 재현을 화예 작품의 실루엣과 소재의 표현감으로 의상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화예의 조형성과 Flower Sculpture 성향이 돋보이는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세계를 통해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의상디자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Flower Sculpture의 조형적인 형태미와 자연소재에서 느껴지는 미적 가치가 높은 화예 작품 기법이 형태적인 아름다움으로 꽃 자체나 식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상의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인체를 통한 표현기법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자 한다.

II.

1. Flower Sculpture

1) 화예

화예란 식물의 조형작업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자연을 소재로 하여 인간이 그 자연의 모형을 모방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화예 작품의 소재가 되는 식물은 어떤 모양이 갖추어진 자연물이나 입체물로 볼 수 있다.

결국 화예는 자연물을 색채학적 원리와 미적 표현원리에 입각해 인간의 조형의지로 재 구성한 입체조형예술이다.³⁾

자연 속의 아름다운 식물을 축소시켜 좁은 공간에 재현하여 인간 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 속에 있는 소재의 특성과 자연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감정표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포함되며 다양한 소재와의 접목으로 조형적인 미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자연의 형태를 재구성하여 조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주변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무의식 욕구의 한 표현⁴⁾으로 화예가 사용되며 자연 속에서 선택된 소재들은 심미적, 정신적인 도구⁵⁾로써 사용되어지는 정적인 조형예술이다. 또한 인간정신을 고양하며 창조적인 사고와 행위를 추구하는 특정공간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공간조형예술인 것이다. 자연의 축소물로써 화예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김춘일·박남희 편역(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p.21.

3) 고희수(1994). 「한국 꽃 예술사」, 서울: 하수출판사, p.11.

4) 이정민(1998). 화예디자인의 현대적 개념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꽃예술 디자인학회, 창간호,p91.

5) 본 연구자는 정신적인 도구의 범위를 시각적인 심리안정 효과 및 정신 및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범위로 정한다.

1954년 독일 바이엔슈테판(Weihenstephan)에 있는 화예디자인을 위한 국립전문학교(Staatliche Fachschule für Blumenkunst)의 교장으로 근무한 모리츠 에바스(Moritz Evers)가 꽃다발만들기 작품의 형(원제; Werformen der Blumenbinderei)이라는 책에서 “풀이나 꽃은 ‘어머니인 자연’의 완전한 창조물이므로 그 존재 자체가 예술임을 인식하여 칭송할 만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화예의 창조적 예술성을 넓은 의미의 또 하나의 자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꽃과 식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써 자연에서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존중하고 생생한 인상을 유지하여 조형을 하여야 진정한 화예디자인이며, 식물의 자기주장, 움직임의 형태, 재질감(표면구조)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⁶⁾

또한 화예란 무한한 자연의 영역 가운데서 문화,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으며 표현적·기술적 다양성을 이룩하였고 동시대의 문화, 조형정신의 시각적, 외형적 유형을 반영하면서 문화, 예술의 다양성에 기여하여 왔다. 특히 가장 가까운 예술은 미술로써 회화나 조각, 건축 등도 화예와 관련성이 깊으나 화예는 색깔이 있으므로 색채를 주로 사용하는 회화가 크게 참고가 된다.⁷⁾ 또한 화예의 형태미는 1910년에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모든 전통이나 기성의 예술양식을 부정하는 다다이즘이나 1924년 다다이즘으로부터 분리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추상적·환상적 효과를 표현한 조형물로 종합예술이라 볼 수 있다.

현대의 화예디자인 표현 영역은 조형예술로서의 한 분야로 다양한 장르의 주제와 순수하기 보다 이질적 요소의 혼합으로 현대성과 창의성을 추구한다. 형식이나 소재의 종류 등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 방법과 조형의식으로 소재의 해체, 변형, 전위, 탈장르화로 조각이나 디스플레이, 의상디자인과의 혼합도 시도되고 있다.⁸⁾ 이처럼 전반적인 예술성이 돋보이는 화예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이 자연에게 베풀 수 있는 표현수단이며 감정의 결정체로 인간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화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습과 환경에 따라 독특한 양식의 문화로 정착되며 정원문화나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확산되고 토착화하며 계승되었다.⁹⁾

화예의 주재료인 꽃으로 고대에선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 이나 신전을 장식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국가 형성이후는 어떠한 결과에 대한 치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로는 집안이나 정원장식에 널리 애용되었다.

그밖에도 꽃으로 몸치장하거나 화가들의 그림 주제나 직물, 벽지, 그릇, 카펫에 이용되었다.

동양 화예라 함은 중국, 한국, 일본을 통틀어 말함인데 역사를 보면 기원전 1세기(BC460) 석가 모니가 35세때 성불한 후 불교가 인도로부터 동남아 여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372

6) 이지언 편저(1998). 「유러피언 플라워 교본」, 서울: 청아플라워즈, p.91.

7) 김광수, 박학봉, 송경용, 송죽현(1994). 「화훼장식과 꽃꽂이」,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p.74.

8) 나선영(1998).포스트 모더니즘과 화예와의 관계, 한국 꽃예술 디자인학회, 창간호, 28-40

9) 진미자(1998). 「화예디자인」, 서울: 미진사, p.14.

년 소수림왕(17대)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후 540년 백제 성왕(26대)때 일본으로 전해졌고 승려들에 의해 불전 공화로써 발생하였다. 자연성의 강조와 선과 여백을 살린 표현미의 추구라는 큰 테두리는 같이 하면서 그 표현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¹⁰⁾ 또한 신에게 봉헌하기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의 경지에서 표현되고 연마되었다.

서양 화예의 역사는 신전에 봉헌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지만 18세기에는 장식적인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식물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재배식물로써 장식품 상징물로써 함께 해왔다. 서양의 화예디자인은 넉넉한 양을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꽃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전통스타일과 세련되고 논리적이며, 예술적인 표현이 강조되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대별된다.¹¹⁾

기원전 29세기경부터 이집트에서 시작하여 전통적으로 발달하여 온 미국, 웨스턴 스타일로 전체적인 형태와 색채를 중시하며, 꽃을 물리적 수단으로 자연에 없는 인위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한다. 1950년경부터 독일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로 만드는 생활꽃 위주로 개별적인 꽃의 개성과 표정을 중시하며 식물의 재배형태를 최우선으로 하여 어떻게 자라는지를 디자인화 하는 유러피언 스타일이 있다.¹²⁾ 대체로 서양 화예는 윤곽이 뚜렷하며 형태와 색상이 강조된 디자인들이 대부분이며 화환이나 꽃다발 형태, 장식적 디자인 형태가 많다.

이러한 화예의 발전은 현대에 이르러 조형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감성에 바탕을 둔 종합 예술적인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2) Flower Sculpture의 특징

조형예술의 사고는 총합적인 것으로 복합적인 정신의 과정이며, 개성적인 상상력의 활동이며, 인간의 표현의지는 대상의 의미를 함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형상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어떤 상징을 사용하게 되며, 그것은 심층적인 관념을 형상화 함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게 한다.¹³⁾

Flower Sculpture는 개별적인 소재의 비례, 조화, 반복의 효과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업으로, 조각품에서 보여지는 선의 유형을 화예에서 사용되는 오브제적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과 같이 작업함으로써 나타난 새롭게 결합한 사물의 형상이며, 조형 예술과 디자인에서는 새로운 사물 형상을 구분하는 요소로까지 취급된다.

자연의 소재로만 형태를 만들었을 때 디자인상의 부분 밖에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업소재나 광물성, 동물성 물질도 함께 등장하여 어울려 짐으로써 더욱 차원 높은 조형미를 이루어 낼 수 있다. Florist들이 추상적인 선의 움직임을 창조함으로써 공간과의 조화미를 표현할 수 있다. 시각적 양식이란 가장 간결한, 가장 규칙적인, 가장 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나도록 마음 속으로 조

10) 꽃예술 15호, p.5.

11) 진미자(1998), p.17.

12) 서수옥(1999), 「플라워 디자인 교본」, 서울: 한국 국제 꽃기에 개발협회, pp.226-227.

13) 한석우(1991). 「입체조형」, 서울:미진사, p.104.

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Flower Sculpture는 선과 공간 사이의 상호 관계로 형식과 선 안에서의 대조보다는 대조를 창출해 내기 위한 조합이다.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밝고 어두움, 많고 적음과 같은 대조되는 것의 전체적인 연속이나 같은 형식의 반복을 들 수 있다.

구조적인 디자인에서 꽃과 잎의 표면 재질에 따른 배열, 작은 꽃들은 재질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 배열하고, 집합적이면서 단순한 모양으로 디자인한다. 대칭은 재료들의 균등한 분배로 나타나며, 두드러진 꽃과 잎들의 개별적인 모양들은 대칭 디자인의 명확한 외형을 증대 시켜 준다. 또한 비대칭은 자유로우면서 제한이 없는 배합을 말하며, 화예디자인은 자유로우면서 완화된 배합, 즉 개별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할 때 Flower Sculpture의 특징은

첫째, 섬세하면서도 단순한 형태미를 나타내며, 반복, 중첩의 효과로 디테일을 표현한다.

둘째, 자연미와 예술미를 동시에 결합시킨 것으로써 조형효과가 뛰어나다.

셋째, 재료의 반복이나 다양한 선의 사용, 변이, 단순화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오브제적인 표현은 조각적인 형상의 이미지로 강조된다.

넷째, 기존의 화예 이미지에서 대담하고 현대적인 조형적 구성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이 돋보이며,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 장르이다.

2. Flower Sculpture

자연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자연을 보는 눈이 없이는 그것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며 비로소 그 존재가 인간에게 확인된다¹⁵⁾라고 했다. 화예는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 뿐만아니라 예술로서의 표현과 인간의 조형능력이 영감을 통한 자연의 표현을 추구¹⁶⁾하게 된다.

화예에서 보여지는 자연성과 어떠한 형상에서 보여지는 예술성의 강조는 조형예술적인 측면과 그 맥을 같이해 인간의 영감과 조형능력에 따른 다른 감각표현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발달하고 인간의 감정에 따른 유형의 변화는 개인이 추구하는 조형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하고 있다.

화예의 조형성을 표현하는 여러 측면 중에서 Flower Sculpture적인 화예는 자연형태와 소재의 미적인 연관성에 관계가 있다. 소재의 특성과 형태미, 색을 얼마나 잘 살리냐에 따라 조형적인 표현 조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예의 조형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예소재의 예를 국한해서 들고자 한다. 보통 조형을 위한 가능성은 새로운 소재의 인식으로 시작해서 기능의 발견과 창조를 하여 많은 작품을 만든다.¹⁷⁾ 소재라는 것은 조각이나 디자인의 세계와 똑같이 중요하다. 눈

14) 루돌프 아른하임(1992). 「예술 심리학」, 김재은(역)(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214.

15) 조요한(1985).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p.28.

16) 이정민(1998). p.88.

17) 김인권(1991). 「조형형태론」. 서울: 미진사. p.72.

앞의 소재로서 새로운 해석을 조형세계에 의하여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재와 기능을 상호 연관시켜 조형세계로 확대하고 정착화 시킨다.

소재는 어떤 목적과 내용을 표현하는가에 따라 그 종류가 선택되며, 현대의 화예디자인은 소재의 수용범위가 넓어져 거의 모든 사물이 다 화예디자인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취급대상은 자연물이다.¹⁸⁾ 꽃 이외에 고목, 돌, 가지, 깃털, 금속, 유리, 철사 및 천 등을 들 수 있다.

화예에서 표현되어지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자연성과 예술성으로 나누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조형성 추구의 일환으로는 예술성에 가까운 표현기법을 제시하며, 소재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개성미를 표현하는, Flower Sculpture 작품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村居昌稻

출처: 展覽會

のいげばな

2000, p58



<그림 2> 永富主虹

출처: 展覽會

のいげばな

1999, p56



<그림 3> 保田靜翠

출처: 展覽會

のいげばな

2000, p87



<그림 4> 木島玉稍

출처: 展覽會

のいげばな

2000, p58

<그림 1~그림 4>는 자연형태가 가진 추상적인 미를 그대로 변환시켜 조형성을 강조한 실루엣으로 형태미를 모티브화해서 선의 반복과 겹침 등이 강조되었다.

<그림 1>은 대나무 줄기를 서로 겹치면서 형태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고, <그림 2>는 끈을 이용하여 변화감을 준 작품으로 조형성이 돋보인다. <그림 3>은 줄기를 수직적인 조형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4>는 엽란 잎을 사선으로 겹치는 기법으로 잔가지로 공간미와 조형성을 강조했다.

이상의 작품들은 꽃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는 화예의 보편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식물 중 나무의 형태를 살아 있거나 건조된 상태로 작가의 의지대로 조형성을 강조한 현대 작품들이다. 자연 형태, 구조, 개념의 조형에의 적응성은 조형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¹⁹⁾ 자연재료의

18) 이정민(1998). p.90.

19) 김인권 역(1991), p.240.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화에 표현에 있어서 나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조형물로 창작되어지며 자연형태를 바탕으로 개성적이며 다양한 표현성을 나타내고 있다.

화에라는 자연 형태적인 면을 조형과 연결시키려면 추상적 개념과 미적 특징, 구조적 특징, 동적 특징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적인 면을 고려할 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나무라는 특정 소재의 평면적인 모티브의 전개나 입체적인 조형물로서 식물이 성장하면서 표현되어지는 선들의 흐름을 제2의 디자인 응용²⁰⁾으로 적용하고 있다.

조형은 그 사람의 느낌과 생각의 표현²¹⁾이기 때문에 화에에서의 창작활동과 그 뜻이 통한다고 볼 수 있다. 화에는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현대 Art적인 조형성이 강조되며 조형예술과의 밀접한 관계로 형태적인 예술성이 돋보인다.

3. Flower Sculpture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역사는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 관계의 역사²²⁾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적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은 화예를 응용하여 자연형태를 가진 그대로 또는 추상적인 형태로 작품활용을 하여왔다.

화에를 응용한 작품 중에 인체에 접목시키는 예술적 가치가 충분한 작품들을 예로부터 많이 볼 수 있다. 화관이나 머리 장식, 가슴, 어깨의 꽃장식(코사지등), 부케 등의 소품과 창작의상으로 꽃



<그림 5> Guy Martin

출처: L'ALBUM Flor Design 1995, No8, p43

<그림 6> Ryusaku Matsuda

출처: World Flower Artist II 1999, p256

<그림 7> 박재원

출처: Fashion Art from Korea 2000, p64

<그림 8> J, L, Scherrer

출처: Book Moda S/S 1999, p201

20) 본 연구자는 원초적인 실선의 디자인 구성을 기초적인 디자인으로 볼 때, 실선에서 또 다른 이미지의 재구성으로 표현되는 조형적인 선의 흐름을 제2의 디자인 응용으로 본다.

21) 김춘일·박남희 편역(1991). p.11

22) 김인권(1991). p.33.

과 식물들이 사용되었다.

현대의 화예디자인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표현 방법도 다양하다. 인체를 통한 형태적인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 5>는 인체의 형을 원단, 식물줄기와 잎, 기타 오브제로 의상표현 한 작품이고, <그림 6>은 의상 자체를 꽃잎과 잎의 조화로 소재감을 표현한 식물을 이용한 작품으로 자연 회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 7>는 예술의상으로 식물의 유기적 표현을 한 작품이고, <그림 8>은 잎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상의 현대 의상디자인에서는 Flower Sculpture의 조형적인 곡선미와 부분적인 디테일의 표현이 패브릭의 모티브 적인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의상과 화예의 관계에 있어서의 응용은 소재의 패턴활용, 조형적인 실루엣의 활용, 자연의 색채이용, 장식적인 소품의 이용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의복의 창조는 감정과 심상을 전달하는 예술표현의 한 형태’²³⁾라고 하는 조형 예술적인 측면의 의상 연구는 화예의 예술적인 측면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고는 지각적 기초가 있으며 특히 시지각적 기초가 중요하다.²⁴⁾ 화예에 있어서 의상과의 접목은 모티브적 또는 조형적인 가치가 자연발생적인 형체물로 보여지므로 가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조형 표현의 수단으로 자연의 형태를 재현하려고 하는 시도는 고대 그리스 이래 계속²⁵⁾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자연물의 하나의 형태인 화예의 이미지를 의상에 도입하여 형태미로 재창조하고자 한다.

화예의 Flower Sculpture적 이미지를 의상에 도입함으로써 디테일적인 표현과 실루엣 표현이 자유로워지며 모티브 개발로 새로운 소재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

III.

1. 가

1955년 5월 8일 벨기에 신트 니콜라스 출신의 플로리스트인 다니엘 오스트는 그의 삶을 자연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엮어 나가는 것에 바쳤다. 또한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그의 완벽한 관점이 달성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니엘 오스트는 “꽃과 잎으로 작업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재 산출이나 복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독립적인 창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⁶⁾ 꽃과 잎이 잘리게 되면 이미 자연의 상태

23)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1988).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까치), p.349.

24) 루돌프 아르하임(1991). 「시각적 사고」, 김정우(역)(서울: 이대출판부), p.436.

25) 김인권(1991), p.40.

26) Daniel Ost(1998). Daniel OstIII, Belgium, p.214

가 아니며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화에 작품은 인간과 꽃의 상호 교감에 의한 결과로써 꽃이 아니며 원래의 모습을 인간의 관점을 통해 하나의 독특한 세계가 되는 것이며 완전히 자연과는 다른 것이다.²⁷⁾ 창조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화예가 플로리스트의 가치관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되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다니엘 오스트는 이러한 재료들을 본질로 보아야 하며 이것을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타입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조각품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으로 식물재료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⁸⁾ 다니엘 오스트는 화예가 자연이나 혹은 온상에서부터 식물 소재를 선택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 때까지 결합하는 것이며, 이것을 ‘식물을 이용한 디자인’이나 ‘화예 디자인 과정’이라 부른다.²⁹⁾

어떻게 심플하면서도 하나의 작품으로 될 수 있는가? 특히 절제된 선들의 사용과 잎과 꽃이 서로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양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며, 그러한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꽃잎에 대한 환상을 표현하는 길이 되는가? 다른 어떤 플로리스트보다 다니엘 오스트는 항상 혁신적인 예술을 표현하기를 갈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 활동에서도 고전적인 화예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세계는 일본, 홍콩, 태국, 대만의 화예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며 동, 서양의 흐름이 독특한 자신만의 작품으로 표현되고 있다.³⁰⁾

다니엘 오스트는 가장 순수한 형식의 단순미에 의해서 그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것에서 탈피하여 인위성이 강조된, 회화에서는 Modern Art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세계는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도전 정신과 풍부한 표현력, 단순미의 추구, 완벽함에 가까운 작품 제작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예술적이고 자연을 묶어 구성하는 그의 천재적인 면을 작품집 I(1989년), II(1993년), III(1998년)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니엘 오스트 작품집에서는 고전적인 작품들을 주제로 소재의 다양성을 주목하고 있다. ‘꽃들을 통한 잎’이라는 이미지로 소재, 칼라와 조화를 이루는 화분이나 부조물 등의 그가 표현하길 원하는 생각들이 화려하게 연출되어 있다.

다니엘 오스트는 약간의 재료들을 사용하여 더욱 감각적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모양과 단아한

27) Ibid., p.214.

28) Ibid., p.214.

29) Ibid., p.214.

30) Ibid., p.13.

라인을 소박한 언어로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더 많은 테크닉의 구사를 의미한 것이며, 화예는 더욱 그 구성에 있어서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본래의 꽃들이 번성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꽃의 아름다움에 더 많은 공간을 끊임없는 결과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순수한 단순미, 간결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꽃과 잎 장식에 살린 풍부함과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니엘 오스트는 작품의 제한성과 순수 예술적인 화예 작품들을 만들기 원하는 간결한 구성에서 성공하였다. 또 동양과 서양의 화예의 특징을 새로운 조화 속에서 모두 소화해 내어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집에 나타나 있는 작품을 조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조형적 특징

(1) 형태적인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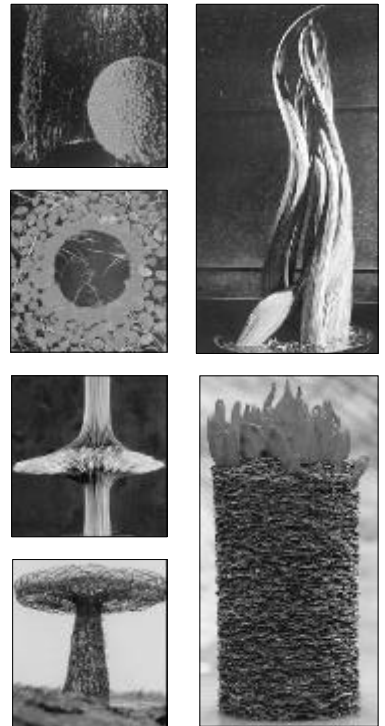
조형전체에서 자연을 보면 미지의 형태 속에 넘쳐 흐르는 형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자연 형태의 탐색은 조형세계를 넓혀준다.³¹⁾ 식물은 각각의 생장방법이 있으며 꽃, 줄기, 잎, 열매 등의 식물이 갖는 고유한 생장리듬과 움직임이 있다. 이것을 형태적으로 표현하면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식물의 특성을 살려 자연에 따른 표현법

둘째. 식물 형태적이지는 않지만 꽃, 잎이나 다른 줄기의 형태를 살린 상징적 표현법

셋째. 식물의 형태를 무시하고, 디자인적으로 표현한 비자연적 표현법이다.

이러한 유형 중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은 식물 형태를 살린 자연적인 표현보다 잎이나 다른 줄기의 특징을 살린 상징적 표현법과 식물의 형태를 무시하고 재구성한 비자연적 표현법이 많다.<그림 9>



<그림 9> 다니엘 오스트 작품

(2) 소재적인 면

천연 소재, 드라이 소재, 가공 소재 등의 형태적인 재 해석을 통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구성을 만든다. 소재의 결합 형태를 보면 줄기간의 결합, 줄

31) 김인권(1991). 「조형형태론」, 서울: 미진사, p.206.

기와 잎, 꽃의 결합, 잎의 결합, 잎과 열매의 결합, 꽃의 결합, 꽃, 잎, 줄기의 결합 등으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이 많다. 식물의 부분적인 면을 살려 열매, 잎, 줄기, 꽃의 특정부분으로 나눌 때 줄기와 잎의 사용이 많고 꽃의 사용, 열매의 사용등으로 나누어진다. 잎이나 꽃 자체의 자연미를 표현하기보다는 식물을 해체해서 겹치거나 반복해서 새로운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9>

(3) 색상적인 면

색감표현력이 뛰어나며 주로 줄기나 잎에서 표현되는 Green계열의 사용빈도가 많고 Red계열의 꽃잎과 Yellow, Brown 계열의 부드러운 색감과 Violet등 Blue계열 소재 사용으로 간결함을 표현해 준다. 다니엘 오스트의 색감표현 능력은 선구자적이며 Modern Art적인 성향이 강하다. 화기의 색과 식물의 조화나 해체 후 재구성에 있어서도 원 포인트의 색감사용 등으로 다양한 색상의 배합보다는 스며드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색상에 있어서는 단색에서는 Green, Brown, Beige, Red가 많았으며, 두 가지 이상에서는 Green과 Brown에 Red, Brown, Pink, Yellow, White 매치가 주종을 이루고, 포인트 색으로 Blue, Violet등을 사용했다.

위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은 자연성과 인위적인 디자인력과 예술성이 겸비되면서도 Modern Art에 가까운 규칙적인 선의 사용과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의 표현이 많다. 또한 식물의 생명의 연장 뿐만 아니라 건조 후 하나의 Art적인 작품의 일면을 보여주며 반복, 배열, 규칙, 겹침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자연 친화적인 의미로 자연 속의 작품제작이 돋보인다. 다니엘 오스트 작품의 절제되면서 정돈되고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새로운 조형미로 표현한 Flower Sculpture적인 작품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IV.

1.

다니엘 오스트의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라인으로 틀에 짜인 듯한 형태미는 의상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다니엘 오스트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와 소재의 재질감으로 의상의 장식적인 선과 소재의 질감으로 변화시켜 표현하였다. 본 연구자는 모티브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실루엣 위주의 흐름을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세계를 통해서 얻고자 한다. 단순하면서도 같은 재료의 반복, 쌓거나 명확하게 형태를 만들어 가는 조각적인 특징적 요소를 의상의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화에 소재를 의상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니엘 오스트 작품의 조각적인 예술성이 창의적인 의상디자인 개발

을 가능하게 한다.

표현 소재에 있어서는 화예에서 사용되는 자연 소재(라피아, 코코아 나무 섬유질)와 가공 소재(와이어)를 실크, 면, 노방과 접목시켜 사용하였고, 동선, 구슬을 장식적 측면에서 활용하였다. 색상은 다니엘 오스트의 조형분석에 나타난 주종색인 Green과 Brown을 사용하였으며 포인트 색상으로 B/Violet을 사용하였다. 그외의 색으로 Ivory, Wine을 사용하였다.

작품 제작방법은 수공예적인 기법 위주로 꽃이나 모티브를 전기 인두와 팁으로 그 형태를 잡는 아트플라워(Art Flower)기법과 구슬과 철사를 이용하여 모티브를 만드는 구슬공예(Beading)기법을 주축으로 실루엣 표현의 볼륨감을 주기 위해 파이핑(PiPing), 퀴팅(Quilting), 크로세(Crochet), 니팅(knitting)기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이미지 표현의 수단으로 염색(Hand Made Dying)을 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슬림하면서 인체의 곡선미를 살려주었다. 구성은 식물의 형태미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원피스 5점, 자켓과 원피스 2점, 투피스 1점으로 구성하였다.

2.

<작품 I>

자연의 멋을 표현하며 소재는 화예에서 사용되는 라피아³²⁾를 사용한 작품으로 라피아 끈을 가늘거나 넓은 폭으로 가른 뒤에, 서로 연결하여 대바늘 뜨기를 하여 라피아의 굵기 변화에서 생긴 볼륨감을 표현한다. 몸판 소재 위에 아트플라워 기법을 사용하여 꽃을 덧 붙여 주는데, 꽃의 소재는 면 거즈를 염색 후 두 겹으로 풀을 먹여서, 꽃잎 형태로 자른 뒤에 둥근 인두로 열처리하여 볼륨감을 주면서 꽃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꽃을 완성하여 라피아 몸판에 달아주는데, 이때 내추럴한 색상의 사이잘 삼을 나무형태로 아랫부분은 넓게 위로 갈수록 줄기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그 위에 꽃을 입체감 있게 달아준다. 줄기 부분에 드라이 된 잎을 부분적으로 달아 줌으로써 인체에 나무가 붙어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자연적인 화예 소재 사용으로 내추럴한 분위기를 주면서 의상과 화예와의 관계를 접근시킨 작품이다.

<작품 II>

식물의 성장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인체를 통한 생명력을 꿈틀거리는 줄기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줄기 부분은 스트링을 원피스 색상인 와인과 브라운이 서로 섞이도록 염색을 하여, 길이의 변화를 주면서 잘라놓고, 꽃은 원피스와 같은 소재로 아트플라워 작업을 통해 크기의 변화를 주어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스트링 안에 철사를 넣어서 변화감과 형태감을 주었으며, 식물이 위로 자라서 줄기, 꽃으로 영양분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했다. 선의 흐름을 포인트로 한 작품으로 줄기의 흐름과 꽃의 입체감 있는 표현이 인간과 식물의 조화를 영속적인 성장이

32) Raffia: 야자과 식물의 잎으로 만든 끈

미지로 표현하였다.

<작품 III>

레이온 실과 가는 동선으로 몸판을 대나무 뜨기 하여 유동적인 형태미가 생기도록 하였다.

12mm 두께의 대바늘을 사용하였으며, 밑단쪽은 조밀한 느낌을 주었고 위로 갈수록 가는 실을 사용하였다. 중횡선까지 12mm 대바늘 사용후 중횡에서 허리선 위에까지는 5mm 대바늘을 사용하였다. 가슴선 에서 어깨까지는 3.5mm 대바늘을 사용하여 대바늘 굵기와 실의 굵기로 몸판의 실루엣이 그라데이션 되도록 하였다.

자켓은 구슬공예기법으로 꽃과 나뭇잎의 형태를 만든 뒤 줄기부분은 동선을 꼬아서 15cm 전후의 길이로 제작해 놓는다. 만들어진 구슬 꽃과 잎을 성근 모양의 면이 되도록 서로 엮어가면서 인체의 형태에 맞추어 바디에 놓고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 동선의 형태 안전성 때문에 상의 자켓은 틀이 잡혀져 있고 원피스도 그라데이션 상태로 형이 잡혀 있어 서로 겹쳐 입으므로써 공간감과 조화미가 표현된다.

<작품 IV>

다니엘 오스트 작품 모티브의 형태를 향아리 모양의 몸체와 그 위에 입체적인 줄기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한 작품으로 실크소재를 사용하여 브라운과 그린을 서로 교차하듯 그라데이션 되도록 염색을 한후에 원피스는 스폰지를 넣어 누볐다. 원피스는 향아리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횡선에서 7쪽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모티브에서 나타나는 줄기의 표면감은 짧은 자켓 위에 화예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를 징그어 줌으로서 볼륨감을 표현하였다. 이때 자켓은 실크에 브라운과 그린으로 염색을 한 후 접착 솜을 부착하여 놓고, 그 위에 와이어를 브라운, 그린의 선염 상태로 몸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묶어 준뒤에 이것을 몸판에 다시 징그어 입체감 있게 표현해 준다. 와이어의 끝부분의 마무리를 위해 목선, 앞단, 밑단을 몸판 원단으로 덧 박아 주었다. 자켓의 소매에서 밑단부분에서는 몸판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와이어만으로 연결하여 비치는 효과를 줌으로써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 모티브에서의 꽃잎은 코사지로 표현하였다. 형태미와 실용미가 서로 어울려진 작품으로 곡선미와 자연미가 강조된 작품이다.

<작품 V>

줄기가 영긴 듯한 표현을 니팅 기법으로 원피스의 실루엣을 잡아준 뒤에 모티브에서 보여지는 줄기의 흐름을 스트링으로 가지런하게 원근법적으로 박아 줄기 자체가 몸판에서 부터 나온 느낌이 들도록 하고, 줄기의 감기는 모습을 변형된 모티브적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원피스의 바닥을 솔잎사라는 입체감이 있는 폴리에스테르사로 대바늘뜨기하여 A라인이 나오도록 했다. 밑단쪽 옆

<표 1> 작품 구성 (모티브 ⇒ 작품)

<p>작품 I</p>	 ⇒ 	<p>작품 V</p>	 ⇒ 
<p>작품 II</p>	 ⇒ 	<p>작품 VI</p>	 ⇒ 
<p>작품 III</p>	 ⇒ 	<p>작품 VII</p>	 ⇒ 
<p>작품 IV</p>	 ⇒ 	<p>작품 VIII</p>	 ⇒ 

선을 터짐으로써 실루엣이 좀더 자유롭고 실용적이면서 리듬감 있도록 표현하였다.

폴의 이미지가 나도록 소재 선택을 하였고, 폴속에 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구슬을 통해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인체의 곡선을 슬림하게 나타내면서 식물의 형체적인 면을 부분적인 디테일의 변화로 나타내었다.

<작품 VI>

원피스의 몸판을 식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린으로 나무줄기 느낌이 나도록 구김효과를 주어 염색 하였다.

실루엣은 나무의 형태가 되도록 밑단을 나무의 밑통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몸판 안쪽에는 접착 솜을 넣어서 볼륨감을 주고 몸선에서 가슴선까지는 인체의 곡선이 보이도록 나뭇잎의 형체를 빌려 여백의미를 살렸다. 폴리망사를 상의 몸판 허리선까지와 소매에 사용하여 비치는 효과를 주고 소매기장을 길게하여 연장된 선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상의 부분은 망사와 면의 겹쳐입는 효과가 나타내어진다. 몸판전체에는 내추럴한 나무껍질(코코아 나무껍질의 섬유질)을 얇게 뜯어서 그린색으로 염색을 하여 나뭇잎 모양으로 크기의 변화를 주면서 만든 뒤 중심선에 철사를 키워 잎이 입체감이 생기도록 표현하였다. 서로 겹쳐가면서 잎의 생태학적인 변화감을 주어 나무위에 잎이 붙어있는 느낌이 들도록 자연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잎을 표현함으로써 화에 소재의 의상에서의 활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품 VII>

줄기와 잎이 형태적인 예술성으로 표현된 화에 작품을 응용한 아트 웨어(Art wear) 폴기가 있는 폴리노방 소재를 사용하여 잎의 형태를 사이즈별로 자른 뒤에 잎 끝선 부분을 둥근인두를 사용하여 눌러줌으로써 볼륨감을 주었다.

서로 겹쳐주면서 휘어지게 감싸는 형태를 보여주며 밑단쪽이 둥글게 퍼지면서 올라가는 A라인으로 아래부분으로 갈수록 볼륨감이 더 생긴다. 줄기의 표현을 위해 폴리 망사스트링으로 끼워 물려 박아줌으로써 입체감과 줄기의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였고 줄기에서부터 잎이 자라나는 느낌이 들도록 스트링 사이에 잎을 끼워 박아 서서히 잎자체로 연결되는 봉제법을 사용하였다. 잎은 중횡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커지도록 재단하였으며 3단에서 4단에 걸쳐 서로 어긋나듯이 연결되어 표현되었다. 줄기와 잎의 형상적인 작품을 객관적인 재현과 더불어 대상의 미적 본질을 파악한후 재구성한 디자인이다.

<작품 VIII>

수공예적인 작품으로 동선을 일정한 크기로 엮기 기법으로 꽃의 형태를 둥글게 만들어 놓는다.

구슬을 크기별로 각각을 동선에 끼워 돌려서 모티브로 만들어 놓고 동선 위에 구슬 모티브를 달아 놓는다. 만들어진 모티브를 서로 연결하여 스커트 형태대로 형을 잡아 완성하고,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동선에 구슬을 끼워 돌려 달아준다. 상의는 둥글게 만들어진 모티브에 자바라를 이용하여 끝을 코바늘 뜨기하여 둥근 볼륨감이 나는 입체적인 모티브로 만들어 서로 연결하면서 완성한다. 완성된 상의 앞선 위 가장자리에는 구슬로 작은 꽃을 달아 마무리한다.

원피스는 실크로 염색하여 색을 맞추어 주고 동선과 겹쳐지면서 생기는 입체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준다.

V.

인간은 자연을 표현의 대상으로 보고 자연의 이미지를 조형화 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자연의 생명력을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한 노력은 식물에까지 이어지며, 식물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스스로 생성 변화한다.

본 연구자는 화예라는 모티브를 통해 식물의 형태미나 표면 구조를 의상에 접목 시킬 수 있었으며 형태적인 특징과 선의 유연성, 색채, 소재를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 조형적인 실루엣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실루엣의 모티브는 Florist인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을 통하였고 그 표현의 매개체로 화예 소재를 접목 시켰다.

화예의 개념과 역사를 통해 화예와 인간과의 밀접된 관계를 알아보았고, 화예의 조형성에서 나타나는 선과 면의 예술미를 Flower Sculpture적인 관점으로 재 해석하여, 의상에 접목시켜 보다 아름다운 의상디자인이 되도록 하였다.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조형성과 자연의 색에서 얻어지는 조화미를 인체에 접목시켜서 실루엣과 색감을 현대의상 디자인에 접목시켜 보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얻어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개성에서 나타나는 표현기법을 통해 조형적으로 나타내는 종합예술이다.

둘째, 화예와 조형예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Flower Sculpture는 형태적인 예술성이 돋보이며 모티브 활용이 다양하다.

셋째, Flower Sculpture와 의상디자인에 있어 소재의 패턴활용, 조형적인 실루엣 활용, 자연의 색채이용, 장식적인 소품 이용 등 다양하며 현대의상에 표현되어지는 재질감과 부분적인 디테일의 변화는 화예에서 표현되는 자연성과 예술성을 함께 표현해준다.

넷째, 다니엘 오스트 작품세계는 자연성과 인위적인 디자인이 강한 Modern Art적인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로 의상디자인 개발이 적합하며, 작품에서의 재구성된 디자인은 독창적 이미지

표현과 색감으로 창작 모티브적인 요소로 창작의상 디자인 개발의 아이디어로 적당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다니엘 오스트의 작품 특징을 의상에 응용해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Flower Sculpture작품에 나타난 독특한 재질감을 통해 의상 소재의 표면 장식적 측면에서 다각적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다니엘 오스트 Flower Sculpture작품에서 보여지는 섬세하면서 단순한 형태미는 의상 실루엣의 창의적 표현에 적절하였다.

셋째, 식물의 유기적 형태미는 표현기법에 대한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식물의 줄기, 잎, 뿌리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확대, 변형, 재구성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의상에서의 장식적 단위 형태로 활용 할 수 있었다.

넷째, Flower Sculpture는 자연미와 예술미를 동시에 결합시킨 것으로써 조형 효과가 뛰어나며, 작품에서 나타난 단위 형태의 중첩과 그로 인한 조형미는 의상의 표면감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상과 같이 Flower Sculpture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는 독창적인 실루엣과 소재의 차별화로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화예에서 보여지는 조각적 형태미와 색채, 재질에 있어서의 독특한 요소들은 의상디자인의 표현 모티브로서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lower Sculpture의 다양한 표현방법이나 형태미가 자연과 더불어 좀 더 폭넓게 연구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접수: 2002년 2월 21일)

【 】

<국내 문헌>

고하수(1994). 「한국의 꽃 예술사 I·II」. 서울: 하수출판사.

構山景子(1984). 「꽃예술과 일본문화」.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김광수·박학봉·송경용·송죽헌 공저(1994). 「화훼장식과 꽃꽂이」.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김춘일·박남희 편역(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루돌프 아르하임(1991). 「시각적 사고」. 김정우 (역).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루돌프 아르하임(1992). 「예술심리학」. 김재은 (역).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마를린 혼, 루이스 구렐(1988).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민동원·손미영(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서수옥(1999). 「플라워 디자인 교본」. 서울: 한국국제 꽃기에 개발협회.

서영희(1988). 「꽃꽂이·아트플라워」. 서울: 도서출판 한국 고시원.

迅弘·杉山明博(1991). 「조형형태론」. 김인권 (역). 서울: 미진사.

- 이지연(1998). 「유러피안 플라워 디자인 교재」. 서울: 청아플라워즈.
 진미자(1999). 「화예디자인」. 서울: 미진사.
 한석우(1991).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Keiko. Koga(1999). 「구슬공예 2」. 서울: 종이나라.

<국외 문헌>

- Angela Rotscher(1995). Fachtufe Florist. Deutschland: Kieser Verlag Gmbh.
 Earth Man Spirit(1994). World Flower Artists 2. Tokyo: 草土出版.
 Kosen ohtsubo(1995). 大坪光泉 . Tokyo: 京都書院.
 Leslie pina Shirley friedland(1999). Wearable Art Accessories & Jewelry. New York: Schuffer Books.
 Martin, Guy(1995). L' Album Flor Design No.8. Paris: Flor Designer International.
 Maria-Barbara Wagner(1992). Objekte,. Donau-Verlag Günstzurg.
 Norah T. Hunter(1994). The Art of Floral Design. New York: Delmar Publishers Inc.
 Ost, Daniel(1989). Daniel Ost. Belgium.
 Ost, Daniel(1993). Daniel Ost. Belgium.
 Ost, Daniel(1998). Daniel Ost. Belgium.
 Teruji, Shirasawa(1999). World Flower Artists 2. Toyko: SODO Publishing.
 吉野實江子(1994) 大地の具曾りもの . Toyko
 白澤照司(1999) WORLD FLOWER ARTISTS 2. Toyko: 草土出版.
 早川由希子(1994) 大地の具曾りもの Toyko.
 草月展(1999) 展覧會 いけばな. Toyko: 草月出版.
 草月展(2000) 展覧會 いけばな. Toyko: 草月出版.

<논문>

- 김순덕(1995). 꽃꽂이의 조형요소와 원리 및 기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나선영(1998). 현대 화예디자인과 포스트모더니즘, 한국꽃예술 디자인학회, 창간호.
 송진영(1989). 꽃꽂이에 있어서 화기, 소재 및 화색의 조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정민(1998). 화예디자인의 현대적 개념과 기능에 관한 연구, 창간호, 한국 꽃예술 디자인 학회.
 이현정(1999). 자연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장영숙(1999). 일본 초월회의, 작품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꽃예술학회 창간호.

정영순(1999). 한국 꽃예술계의 작품발전현황, 한국꽃예술학회 창간호.

<정기간행물>

AXIS. World Design Journal. Vol. 43

Book Moda. Vol 34, 38, 41.

Collection '95 S/S, 98 S/S, 99/2000

Fashion Art From Korea 2000

Haute Couture '95/96 A/W

꽃예술 15호

A Study on clothing design through the modeling character of flower sculpture focused on Daniel Ost

Lecturer, Kyungil Univ. Suwon Univ. **Hae-Sen Jung**

Professor, Dept. of Art and Design, Ewha Womans Univ. **Chun-Bum Bae**

From the beginning of the human history, human beings have an instinct to get close to plants. They search for beauty in the nature and try to elevate the quality and aesthetic value of life through plants.

As such, the humans chose plants as the subject of expressing beauty of nature, and the formal beauty of them is often used as a creative motive for its high artistic value.

Hereby, I try to apply the modeling beauty of plants to clothing through observation and examination on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ress the artistic value of clothing in the sense of nature-friendliness through the re-translation of flower work, which is the byproduct of intera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flower art.

As a theoretical basis, this study describes the concept and change of flower art in the east and west, and examines relation between flower and modeling art through literature and pictures, and looks at relation between flower art and clothing design through photos of flower work and modern clothing designs. In Daniel Ost's world of work, the study applied modern art characters to clothing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his image, work collection and the analysis of form, material and color.

In material of expression, natural materials are applied to silk, cotton, etc. As an expression method, art flower, bead work and quilting, piping, crochet, knitting and hand made dying are used.

I created total eight pieces of clothes with the strong trend of modeling and flower art character.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expression of material made from a plane surface with the motive of nature helps develop clothing materials, and it can be used as high quality handcraft work.

Seco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flower material to clothing and the invisible change of movement of plants and the sublimated aesthetic senses of life, living clothing technique gives a nature-friendly meaning.

Third, the infinite expression of art in flower work gives an important help in deciding the silhouette of clothing, and it could be created as a modern clothing design with high aesthetic value.

Fourth, the organic expression and various materials of plants provides infinite ideas of expressing techniques, and the expansion, reduction and reforming of plants structure in designing could be used as an element of clothing motives.

The study on clothing through the modeling character of flower art as written above suggests the possibility of studying natural materials as the motive of clothing design, Harmony of patterns and colors presented in flower sculpture should continuously studies as the unique and artistic expression of clothing design. I expect these expressing skills presented as the prolongation of vitality will be broadly studied.

* Keywords: Flower Sculpture, Daniel Ost, Design